

벤츠 '0.2초의 기술'...교통사고 미리 알고 탑승자 지켰다

'프리-세이프' 양산차 도입 20주년

메르세데스-벤츠의 독보적인 탑승자 사고예방 안전기술 '프리-세이프®' (PRE-SAFE®)가 올해 양산차 도입 20주년을 맞았다. 2002년 S-클래스를 통해 세계 최초로 공개된 이후 혁신을 거듭해 20여년간 운전자와 탑승자 보호에 기여한 프리-세이프 역사를 들여다봤다.

26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 따르면 2002년 S-클래스를 통해 세계 최초로 공개된 프리-세이프는 차량 내 능동적 안전 시스템을 통해 사고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물론, 동시에 해당 정보를 수동적 안전시스템에 즉시 공유해 작동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충돌 사고 징후가 포착되고 실제 충돌이 일어나기 전 약 0.2초의 시간을 활용해 탑승자를 미리 보호한다.

무사고 주행(Accident-Free Driving)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는 혁신을 이어가는 메르세데스-벤츠는 지난 20여년 동안 프리-세이프를 발전시켜왔다.

탑승자 사고 예방 안전 기술인 프리-세이프 개발의 시작은 199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메르세데스-벤츠의 엔지니어들은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충돌 사고의 징후가 실제 충돌 이전에 나타나는데 반해, 탑승자 보호 시스템은 충돌 발생 이후에 가동돼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귀중한 시간을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후 벤츠는 충돌 가능성이 있는 주행 상황을 인

사고 징후를 사전에 파악해 충돌 0.2초 전 탑승자 미리 보호 2002년 S-클래스 세계 첫 공개...혁신으로 운전자 보호 기여

지한 시점부터 실제 충돌까지의 시간을 활용해 탑승자에게 예방적 보호 조치를 제공하는 프리-세이프를 개발했다.

프리-세이프 기술의 획기적 발전은 벤츠가 최초로 개발한 자동차의 핵심 안전 기술인 ABS와 ESP가 주요한 역할을 했다.

벤츠는 1995년 차체 자세 제어 시스템인 ESP를 S600 쿠페 모델에 적용하며 세계 최초로 공개했고, 능동형 안전 시스템 분야의 기술 탄생을 알렸다. 이후 1990년대 말까지 벤츠의 모든 차량에 브레이크 어시스트와 ESP가 기본으로 탑재돼 긴급 제동 및 오버-언더스티어가 발생한 경우 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이후 벤츠는 2002년 S-클래스(W220)를 통해 능동형과 수동형 안전 시스템을 결합한 예방적 기술인 프리-세이프를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

프리-세이프는 브레이크 어시스트 및 ESP를 통해 급브레이크, 강한 오버-언더스티어 등 사고 위험을 감지할 경우 1000분의 1초 이내 전자제어 장치에 정보를 보낸다. 이후 시스템이 스스로 탑승자의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루프와 창문을 닫아주고, 탑승자의 좌석 위치를 바로잡아 에어백이 팽창하기 위한 최적의 상태로 맞춰주는 등 조치를 취한

다.

또 위험한 주행 상황을 감지하면 멀티컨투어 시트는 시트 쿠션과 좌석 등받이에 있는 에어 챔버를 즉시 작동시켜 승객을 감싸 지지한다. 이를 통해 상체의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전자와 조수석 승객의 위험한 경우 손상을 줄인다.

2013년에는 새로운 S-클래스(W222)를 통해 프리-세이프 플러스와 프리-세이프 임펄스 기능을 공개했다.

프리-세이프 플러스는 압박한 후면 충돌을 감지하고 후방 위험 경고등을 깜빡여 뒷차량에 위험을 경고한다. 또 예상되는 전면 충격을 줄이기 위해 차가 정지하는 경우 브레이크를 잠가 탑승자에게 가해지는 부담 및 2차 사고의 위험을 줄여준다.

충돌 초기 단계에서 충돌에 따른 감속이 이뤄지기 전 안전 벨트를 좌석 방향으로 당겨 추가 공간을 만들어 앞좌석 탑승자를 충격의 영향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분리해준다.

2016년에는 프리-세이프 임펄스 사이드를 E-클래스(W213)와 함께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 프리-세이프 임펄스 사이드는 압박한 측면 충돌이 감지되는 즉시 시트 양쪽의 지지대인 사이드 볼스터(side bolster) 에어 챔버를 부풀려 탑승자를 차량



메르세데스-벤츠 직원이 벤츠의 독보적인 탑승자 사고예방 안전기술인 '프리-세이프®'에 대한 시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의 도어에서 중앙 방향으로 이동시켜 충격 흡수 공간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공개된 프리-세이프 사운드는 충돌이 감지될 경우 차량 사운드 시스템을 통해 짧은 간섭 신호를 내보내 귀속 근육을 수축시켜 충돌 시 소음에 의한 청력 손상을 줄여준다. 또한 벤츠는 2020년 더 뉴 S클래스(W223) 출

시와 함께 더욱 향상된 프리-세이프 임펄스 사이드 기능을 최초로 공개했다. 측면 충돌을 감지하면 E-액티브 바디 컨트롤 서스펜션 기능을 통해 차체를 약 80mm까지 올려 충격을 차량 하부의 단단한 구조물로 유도, 탑승자가 받는 충격을 줄여준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기아는 스티어의 디자인 차별화 모델 '트리뷰트 에디션'을 국내 200대 한정량으로 판매한다. 사진은 트리뷰트 에디션 외관과 내관 모습. <기아 제공>

기아 스티어를 기리며...당신의 번호를 새기세요

'트리뷰트 에디션' 국내 200대 한정 판매...판매가 4825만원

기아가 스티어를 기리기 위한 특별 모델을 출시했다.

기아는 스티어의 디자인 차별화 모델인 '트리뷰트(Tribute) 에디션'을 국내 200대, 글로벌 포함 총 1000대 한정량으로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스티어 리뷰트 에디션은 스티어 3.3 가솔린 터보 GT 트림을 기반으로 전용 내외장 색상과 디자인 사양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전용 외장 색상으로 에스콧 그린과 새로 추가된 문스케이프 매트 그레이 등 2가지의 색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각 100대씩 판매한다.

또한 ▲19인치 휠 ▲아웃사이드 미러 ▲캘리퍼에 블랙 색상을 적용해 역동적인 분위기를 구현했다. 블랙 캘리퍼는 퍼포먼스 사양 선택 시

적용된다. 실내는 리뷰트 에디션 전용 '테라코타 브라운 인테리어'를 신규 적용하고 콘솔 상단과 도어 가니시(장식)에 카본 무늬의 소재를 사용하고 고급감을 한층 높였다.

이와 함께 차명에서 착안한 말벌 모양의 엠블럼을 헤드레스트에 적용하고 운전석측 도어 스키퍼에 고객이 직접 선택 가능한 고유 일련번호를 새겨 리뷰트 에디션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선사한다.

스티어 리뷰트 에디션의 판매 가격은 개별 소비세 3.5% 기준 4825만원이다.

한편 기아는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지갑 ▲키홀더 ▲여권케이스 등 '스미스앤레드'와 협업한 한정판 가죽 굿즈와 기념 인증패를 제공



하고 추후 스티어만의 고성능을 즐길 수 있는 서킷 주행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아 관계자는 "리뷰트 에디션은 스티어가 프리미엄 퍼포먼스 세단으로서 기아 브랜드에 공헌한 바를 기리기 위한 한정판 모델"이라며 "새로운 내외장 색상과 고유 일련번호 등 특별한 디자인 요소를 적용해 소장 가치를 높였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국토요타, 도서 5200여권 기증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커넥트투에서 '도서기부 캠페인'을 통해 모인 5200여권의 도서를 사단법인 맹스기비에 기증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 8년째 이어오고 있는 '도서기부 캠페인'은 렉서스의 복합문화공간인 커넥트투 방문객들이 기부한 도서를 모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토요타-렉서스 고객을 비롯해 전국 토요타-렉서스 공식 딜러, 한국토요타자동차 및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임직원들도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도서기부 캠페인을 통해 모인 책은 지난해 보다 약 2.5배 증가한 5200여권이다. 비영리 독서진흥단체 맹스기비를 통해 소규모 공부방, 농촌지역 도서관 등 규모가 작고 보유 도서가 상대

적으로 적은 작은도서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병진 한국토요타자동차 상무는 "다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해 온 도서기부 캠페인에 전국 토요타-렉서스 딜러 임직원은 물론 각 지역의 고객분들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해 보람을 느낀다"며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사랑받는 기업시민이 되기 위해 전국의 토요타, 렉서스 딜러와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지난달 전국 16개 토요타-렉서스 공식 딜러와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임직원 및 토요타 주말농부와 함께 '2022 토요타-렉서스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김장김치 18t(약 6000포기)을 전국 각 지역 복지관 및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전달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

현대차 투싼 '최고의 패밀리카'

英 BBC 탐기어 선정

현대자동차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 투싼<사진>이 세계 최고의 자동차 TV쇼를 꼽히는 영국 BBC 탐기어가 선정하는 '최고의 패밀리카'에 올랐다.

현대차는 최근 방영된 탐기어 프로그램에서 영국 현지에서 판매 중인 50종의 패밀리카 가운데 투싼이 경쟁차들을 모두 제치고 최고의 패밀리카에 뽑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최고의 패밀리카 후보에는 50개의 모델들이 경쟁을 벌였으며, 탐기어는 최종 후보로 현대차 투싼을 포함해 시트로엥 E-베를링고, 스코다 옥타비아 등 3차종을 선정했다.

결국 투싼은 진행자들의 극찬을 받으며 최고의 패밀리카에 등극했다.

탐기어 프로그램의 사회자인 크리스 해리스는 "투싼은 제대로 된 핫 해치 디자인과 흥미로운 전동화 라인업, 패밀리카로서의 가치 등을 앞세워 경쟁차들을 압도하고 있다"며 "아주 훌륭한 차로써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극찬했다.

또다른 사회자 패디 맥키네스는 "우리 모두는 이번 결정에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추천하는 차는 바로 현대차 투싼이다"고 소개했다.

2004년 탐기어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현대차가 이제는 탐기어의 단골 호평 업체로 위상이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다.



최근 탐기어 매거진은 '2022 탐기어 어워즈'에서 '올해의 인기 차량'으로 현대차 N 비전 74를, '올해의 자동차회사'에 기아를 선정했다.

854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탐기어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현대차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지난 9월 게재된 현대차 플링램 RN22e와 N 비전 74 시승 영상에서 탐기어는 2020년대 자동차 시장은 현대차의 시대라고 평가하며, 현대차가 업계를 지배하는 새로운 챔피언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해당 영상은 3개월여 만에 조회수 384만회를 기록하며 2022년 탐기어 채널 최다 조회 영상에 오르기도 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기아, 복지부 '건강친화기업' 인증 획득

기아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기아는 최근 열린 '2022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대회'에서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하고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사진>

올해 본격 실시된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기업을 선정한다.

기아는 건강친화경영·건강친화문화·건강친화활동·직원만족도 4개 부문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기업 경영의 핵심가치로 여기고 지속가능한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에 기아가 획득한 건강친화기업 인증기간은 이번 달 7일부터 2025년 12월6일까지 3년이다.

기아는 지속 가능하고 수준 높은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내, 외부 전문가들과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건강증진 업무 체계를 능동적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중사자 안전보건 의견청취 플랫폼, 산업보건위원회, 안전보건 협력사 협의체 등을 통해 건강증진



제도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이 건강 관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사내 산업보건센터와 스포츠센터 시설 등을 활용 수준 높은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예방 및 재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아 관계자는 "건강의 가치가 이제 관계자들의 삶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고 고도화된 건강관리 사업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